

근세 일본에서 대중관광의 발달과 종교 -‘이세마이리(伊勢まいり: 이세신궁참배)’를 중심으로-¹⁾

권숙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비교문화적으로 일본의 관광이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산업화가 진전되기 훨씬 전인 에도시대에 이미 관광의 대중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근세 일본에서 관광의 대중화는 종교적 참배와 긴밀한 관련하에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종교적 목적을 가진 이런 참배여행은 실제로는 ‘관광’이나 ‘유희’를 위한 여행으로서의 의미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일본에서의 대중관광의 출발로 간주된다. 종교참배의 전통 자체는 일본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던 것이나 에도시대에 들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됐던 여러 조건들의 정비와 더불어 서민들도 종교참배 여행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산킨코타이제도(參勤交代制度)의 확립으로 인한 도로망과 숙박시설의 정비는 장거리 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해주었으며, 여행관련 서비스업의 발달,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성장 등도 여행을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봉건체제하에서 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예외적으로 종교적 참배나 온천 치유를 위한 여행만이 허가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공식적인 명분은 종교적 참배, 실제 목적은 관광”으로서 많은 서민들이 참배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세신궁 참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서민들이 각종의 코(講)나 단체 기금을 마련하여 참배의 대열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세참배 여행 중에 기록된 여행일지나 이세신궁 앞의 몬젠마찌(門前町)에 관련된 기록 등은 일본 최고의 성지인 이세신궁으로의 참배여행 역시 “관광”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I. 서 론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관광이 대중화된 것, 즉 일반 서민들에게도 어느정도 관광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에도시대부터의 일이며, 이는 특히 신사와 불사에 대한 참배와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의 건국신화의 본거지인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참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서민들은 “평생에 한 번은 이세참배를...” 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각종의 코(講)나 단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참배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신사와 불사의 참배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관광적” 요소를 다분히 가진 것으로 참배의 루트에는 종종 인근의 명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신사, 불사의 참배에는 하코네(箱根)나 아리마(有馬), 아타미(熱海)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¹⁾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식 용어나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귀에 익숙한 것들(예, 신도神道, 신궁神宮 등)은 우리 식 한자 발음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등의 유명 온천지에 들르는 것이나, 에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관광하고 유람하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에도시대의 신사와 불사 참배는 오늘날의 단체 관광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에 있어서 대중관광의 발흥을 에도시대의 종교적 참배에서 찾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Graburn 1983; Tokuhisa 1980; Vaporis 1994; 石森 1989; 神崎 1990, 1991). 더불어 이러한 ‘관광을 겸비한 참배’는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권력에 의한 이동성의 제약과 봉건체제의 일상적인 속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합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일본 근세에서의 관광의 대중화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관광은 인간과 여러 가지 물적, 제도적 장치가 특정의 문화 안에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물리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문화적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비로서 여행과 관광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관광은 비교문화학에 있어 중요하고도 유용한 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경우 서민들에게까지 관광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즉 산업혁명 이후의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때가 되면 철도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비로소 서민들도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해야 했던 그 이전 단계에서는 서민들에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선 경비조달면에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도보 여행이 보편적이었던 일본의 경우 오히려 이점이 서민들도 보다 적은 부담으로 (관광) 여행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광이 보이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본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일본에 있어서의 대중관광의 발전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술한 대로 근세 일본에서의 관광의 대중화가 종교적 참배와 긴밀한 관련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종교적 참배여행에 있어 이세신궁 참배가 갖는 의미와 위치를 개략해 보고, 근세 일본사회에서 서민들의 대량 이동/여행이 가능했던 주요 조건들을 고찰한다. 이어 이세신궁 참배여행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몇 여행일지에 나타난 여행일정과 이세신궁 앞에 주로 이세신궁의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발달한 문젠마치(門前町)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대중관광의 발달이 보이는 특성들을 관광현상 일반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연결시켜보고 그 비교문화적 함의들을 논의하도록 한다.

II. 근세 일본사회에서의 여행의 전개

1. 에도시대의 여행의 대중화

일본에서도 관광여행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것은 철도가 상당히 발달한 타이쇼(大正)기부터의 일이지만 에도시대에도 이미 서민의 상당수를 포함해서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 (Graburn 1983; Tokuhisa 1980; 石森 1989; 神崎 1990, 1991). 이

러한 사실은 일종의 여행안내서와 여행기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각종 『名所記』와 『道中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주요 가도(街道)가 여행하는 사람들로 얼마나 붐비고 있었나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흔히 인용되는 것이 에도시대 나가사키(長岐)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에 의사로 와 있었던 캠펬(Englebert Kaempfer)의 관찰기이다. 캠펬는 에도시대 중기 겐로쿠(元祿) 4년에 해당하는 1691년과 그 다음 해에 상사의 에도 여행을 동행하게 되는데 이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일종의 여행·견문기인 『에도참부여행일기(江戸參府旅行日記)』를 남겼다. 이 책은 그가 여행 도중에 듣고 본 것들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당시 서민들의 여행 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나라의 가도에는 매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있어, 두 세 계절 동안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유럽 도시들의 길거리와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이 길에 넘쳐나고 있다. 나는 일곱 개의 주요 가도(街道) 중 가장 중요한 토카이도(東海道)를 네 번이나 왕래했으므로 그 체험에 근거해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많은] 이유의 하나는 이 나라의 인구가 많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국민들과 달리 이들은 상당히 자주 여행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켄펠 1977: 49)

캠펬가 이 기록을 남긴 겐로쿠기 당시에 토카이도를 통행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정해 보면 연간 약 100만인을 넘는 수치가 나온다. 이는 당시 토카이도의 주요 길목 중의 하나였던 하마나호수(浜名湖)를 건너는 배의 왕래 빈도를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 당시 이 호수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했었다고 한다. 어쨌든 1702년(元祿 15년)에 이 배는 그 호수를 4만4천7백6십4번 왕래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번에 대략 20여명을 태웠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만인 가까운 사람이 하마나 호수를 건넜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大山 1967, 石森 1989: 96에서 재인용). 여기에는 산킨코파이(參勤交代) 행렬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도보로 호수의 북단을 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년에 100만명 이상이 토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당시 인구를 약 3천만으로 본다면 대략 30명 중의 1명이 이 길을 따라 여행했던 것이 된다 (石森 1989: 96).

이것은 당시의 유럽과 비교해 봐도 흥미로운 일이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귀족계급과 상층계급이 여행을 활발히 했었지만 서민에게 여행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예컨대 영국의 한 역사가는 18세기 초두에 “유람을 위해서 스코트랜드를 방문한 사람은 1년에 12인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石森 1989: 96에서 인용). 이에 비해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서민에게도 여행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놀이로서의 여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이 매우 독특하다.

2. 여행의 대중화를 가능케 한 조건들

일본에서도 에도시대 이전까지는 일반 서민들의 여행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것이었다 (Graburn 1983: 50). 대부분의 여행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여행(旅)은 타

び)이란 말도 군사적 여행을 의미했거나 동시에 종교적 기원이 있는 말이었다. 즉 ‘여행하는 사람’이란 뜻의 ‘타비비토(旅人: たびびと)’는 ‘타베비토(たべびと)’에서 온 말인데, 이는 떠돌아 다니는 수도승을 의미했다고 한다 (ibid.: 50).

중세의 전투가 끝나고 전국이 통일되고 봉건체제가 확립되면서 장거리 여행이 보다 보편화된다. 특히 에도시대에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됐던 조건들로는 여러 가지(도로 정비,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기, 경제적 성장, 여행관련 서비스업의 발달...)를 꼽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여행을 직접적으로 가능케 한 조건으로는 산킨코타이제도(參勤交代制度)의 확립으로 인한 도로망과 숙박시설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산킨코타이제도는 막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이묘(大名)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제도화시킨 것으로, 원칙적으로 각 다이묘들이 격년으로 에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약 300여개에 달하는 제 번들의 다이묘 행렬이 거의 매년 에도를 왕래하게 되었다. 규모가 큰 번의 경우에는 이 행렬이 400에서 500명으로 구성됐고, 1만석 이하의 작은 번의 경우 50에서 60명이었다고 하니(神崎 1990: 84) 평균 250여명이라 해도 토카이도 등의 주요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숫자는 엄청난 것이 된다.

에도막부의 교통정책은 그 이전까지와 비교할 때 적극적인 것이었다. 막부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각 다이묘들의 분산적인 교통체계를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로 개편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힘썼다. 특히 에도시대 초기의 산킨코타이제의 확립 이후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고카이도(五街道)²⁾를 비롯하여 다른 가도가 정비되고, 산킨코타이제로 전국 각지의 다이묘 일행이 빈번히 에도와 자신의 번 사이를 왕복해야 했던 이유로 숙박시설도 충실해졌다 (石森 1989; 神崎 1990; 豊田, 兒玉 1970: 105; Vaporis 1994). 결과적으로 각지를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교토에서 에도에 이르는 토카이도(東海道)는 그야말로 당시의 최대 간선도로였다. 토카이도를 따라 53개소의 세키쇼(關所)가 설치되었으며 이곳에는 숙박시설(宿場)도 정비되었다. 특히 에도시대 중기에 처음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에도시대의 숙박시설은 ‘키센(木錢; 혹은 키친 木賃이라고도 함) 형식에서 ‘키센·코메다이(木錢·米代)’ 형식으로, 그리고는 ‘하타고(旅籠)’ 형식으로 바뀌어갔다고 한다 (櫻井 1985: 180). 키센형식의 숙박시설이란 식량은 여행하는 자가 지참하고 뭇나무 값을 숙소에 지불하고 자취하는 형태의 숙소를 말한다. 키센·코메다이 형식은 숙소에서 마련해 놓는 뭇나무와 쌀을 사서 자취를 하는 형태의 숙박시설이며, 하타고 형식은 식사가 딸려 나오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에도 중기에 이르면 숙박시설의 대종이 키센 형식으로부터 하타고 형식으로 전환되었다³⁾. 이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여행도중에 먹을 음식을 손수 지참하지 않아도 되게

²⁾고카이도는 에도와 교토를 연결하는 당시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토카이도(東海道)와, 나카센도(中山道), 닛코도추(日光道中), 오슈도추(奥州道中), 코슈도추(甲州道中)를 지칭한다.

³⁾그러나 키센 형식의 숙박시설이 하타고 형식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는 주로 키센 형식 숙소의 경제적인 숙박 요금 때문으로 여겨진다. 키센 형식의 숙박업소는 토카이도에서도 에도시대 말기까지 남아있었다고 한다 (Vaporis 1994: 229).

됨으로써 놀이를 위한 여행·관광이 발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Ishimori 1989).

유명사찰이나 신사가 제공하는 '온시(御師)' 또는 '슈쿠보(宿坊)' 또한 이 시기에 여행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데 이것들은 큰 신사나 사찰에 소속된 숙박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문옥표 1997을 참조). 특히 '온시(御師)'라고 불리는 이세신궁의 방문객용 숙소는 잘 조직되고 안락한 숙소를 제공하면서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 온시는 이세신궁의 외궁(外宮)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에도시대에 그 수가 급증하여 교호시대(享保: 1716-1736)에는 피크에 달해서 1724년의 경우 615개소의 온시가 있었다고 한다 (Ishimori 1989: 185). 온시의 활동은 오늘날의 여행회사, 여관, 기념품 가게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온시아말로 오늘날의 여행관련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유치되어진 민중들의 이세신궁 참배여행은 숙박부터 시작해 참배, 여흥까지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면에서 실로 '이세신궁참배 단체패키지투어'라 부를만한 것이다 (神崎 1990: 190).

더불어 에도시대 중기에는 교통수단, 위차(爲借)제도, 하물탁송제도를 비롯하여 여행안내업, 토산품 판매업 등의 여행관련 서비스업이 현격히 향상되어 여행하는 것을 한결 용이하게 하였다. 18세기 초가 되면 지역단위의 숙박업소 조직도 등장한다. 이들은 일종의 동업 조합 조직으로서 조직의 회원 숙박업소들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회원 숙박업소에 숙박을 보장하고, 상호정보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숙박업소의 숫자도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한다. 하타고 형식의 숙박시설만 보아도 토카이도의 경우 관소마다 평균 55개소, 닛코도추에 39개소, 나카센도와 오슈도추의 경우 27개소씩 있었다고 하는데(Vaporis 1994: 228), 이러한 사정은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선택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각종의 여행안내서, 여행정보지, 여행소설, 지도 등의 보급은 여행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여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었다 (石森 1989: 103). 특히 잘 알려진 일본 기행문학의 고전으로 일종의 여행소설인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의 『토카이도추 히자쿠리계(東海道中膝栗毛)』는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여행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한다.

에도시대에 여행이 발달한 것은 에도 중기 무렵이다. 특히 겐로쿠(元祿: 1688-1703), 분카(文化: 1804-1816), 분세이(文政: 1817-1829)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세상이 안정되고 연극이나 우키요에(浮世繪: 에도시대에 성행한 유녀나 연극 등을 다룬 풍속화) 같은 민중문화가 발흥한 시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 민중들의 여행도 위에서 언급한 제반 조건 정비와 더불어 이런 시대적 분위기하에서 번창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에도시대에 서민여행·관광이 보편화된 데에는 사사참배(社寺參詣), 특히 이세마이리(伊勢參宮)이라는 관행과 제도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⁴⁾

⁴⁾ 영어의 pilgrimage에 해당하는 일본어로는 참궁(參宮), 예(詣)를 비롯하여 참예(參詣), 순배(順拜), 순례(順禮)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구별되어서 쓰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참궁'이 그러하다. 통상 '참궁'이란 말은 이세신궁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세신궁 외에 다른 신사에

III. 근세 일본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세마이리

1. 일본에서의 종교적 순례·참배와 이세마이리

일본에서의 종교적 순례의 전통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격지 참배로서의 순례가 시작된 것은 나라(奈良)시대였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현저화된 것은 헤이안(平安) 시대이다(星野 1986: 234). 그러나 이 시기의 순례자의 중심은 귀족이나 상황(上皇), 혹은 황족들이었으며, 당시 순례의 대상지가 되던 곳은 주로 킨키(近畿) 지방의 사찰들이었다. 순례가 사회의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던 점은 카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카마쿠라 시대에는 동국(東國) 무사들에 의한 쿠마노(熊野) 참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키나이(畿内)의 부유 농민의 이세신궁참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石森 1989: 101). 그러던 것이 에도시대가 된 후 여행을 가능케하는 여러조건의 정비와 함께 서민에 의한 종교적 순례의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즉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민중층이 순례자의 중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봉건제체하의 에도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서민의 여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농민과 여성의 여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神崎 1991: 127). 비단 이동 자체에 대한 제약 외에 일단 이동이 허락되더라도 이동경로에 대한 통제도 가하여졌다.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자들은 감시가 보다 용이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여행해야 했으며, 강을 건너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곳에서만 가능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이동경로는 더욱 많은 통제를 받아서 예컨대 토카이도의 53개 관소 중 20곳은 그 지역의 여성들만이 통과가 가능하였다고 한다(Vaporis 1991: 6).

그러나 사사참배와 온천치유(湯治)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되었고 많은 서민들이 이 두가지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더불어 에도시대 들어 농민층의 경제적 향상, 대도시 상인층의 출현, 치안 안정, 교통망과 교통수단의 충실화 등도 이 시기에 들어 순례가 대중화되는데 기여한 요인들이었다(星野 1986: 238). 그렇다면 연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신사와 불사를 참배하고 있었을까. 이세신궁은 매년 20-60만명, 젤코지(善光寺)는 20만명, 테와산산(出羽三山)은 15만명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밖에 코야산(高野山), 나리타산(成田山), 닛코(日光), 콘피라(金毘羅) 등 수많은 신사와 사찰이 참배객을 끌어들이었다. 각지의 신사와 사찰에의 참배객은 연간 약 300만명 정도였지 않나 말해지고 있다(石森 1989: 98).

그 중에서도 이세신궁은 일본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특히 내궁(内宮)은 천황가의 선조이자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시는 곳이며, 일본인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이세마이리를' 이라는 소망을 공유한다고 말해

참배하는 경우에는 참궁이 아니라 '예', 혹은 '참예'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세신궁참배를 의미하는 일본어로는 통상 '이세마이리(伊勢まいり)' 혹은 '이세참궁(伊勢参宮)'이란 말들이 쓰이고 있으나 '참궁'이란 표현이 우리 귀에 낯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세마이리' 혹은 '이세신궁참배'라고 쓰기로 한다. 기타 다른 신사와 불사에의 참배도 일본어로는 통상 '사사참예(社寺参詣)'이나 이것도 같은 이유로 '사사참배'로 표기한다.

진다. 그러나 에도시대에 이세마이리를 위한 장거리 여행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서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민들은 ‘코(講)’라는 일종의 계를 조직하여 필요한 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세마이리를 하였다 (이 점에 관해선 문옥표 1997을 참조). 이렇게 적립한 돈으로 운번제로 혹은 추천으로 대표자를 대신 참배시켰으며(‘代參’), 이 때 대참하는 사람은 참배를 마친 후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신사에서 나누어주는 부적인 ‘오하라이(御拂)’를 받아왔다.

하지만 코제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집의 가장인 남자뿐이고 여자나 어린이, 차삼남(次三男) 등은 제외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이세신궁 참배 여행을 떠나는 ‘누케마이리(抜參り)’로 일생의 소원인 이세마이리를 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기도 했다 (神崎 1990: 86; 1991: 131). 누케마이리는 본래는 비합법적이지만 여행도중 각종 접대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해 ‘세상의 은혜 덕분에 이세마이리가 가능했다’란 의미에서 ‘오카게마이리(お蔭參り): 은덕 참배’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1718년 이세 측에서 막부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그해 정월에서 4월 15일까지 42만7천명이 이세신궁참배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세마이리의 주체는 대개가 농민으로 이들은 주로 농한기에 여행을 떠났으며 따라서 연중치는 이것의 2-3배로 추정된다. 즉 에도 중기에는 약 50만에서 60만명이 매년 이세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누케마이리’ 등의 관행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 커지며, 이는 에도 중기의 이세마이리의 성황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神崎 1991: 132). 즉 그것은 현재의 해외여행붐에 결코 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한다 (石森 1989; 神崎 1990, 1991). 이들 참배객들은 이세신궁을 참배를 한다거나 부적을 사고 명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이세신궁으로 향했지만 동시에 이런 종교적 목적만이 이들을 이세로 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일찌기 미국 인류학자 넬슨 그레이번(Nelson Graburn)이 표현한대로 “기도뿐만 아니라 돈도 쓰고 놀이도 하기 위한(to pray, pay and play)” (Graburn 1983) 세속적인 욕구 역시 이세마이리의 주요 동기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 서민의 이동과 여행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이세마이리

기본적으로 도쿠가와와 봉건체제하에선 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당시 여행을 하는 데는 관의 허가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오라이키테(往來切手)’와 ‘세키쇼테가타(關所手形)’를 받아야만 하였다. 오라이키테는 일종의 신원증명서로서 개인이 속한 질의 주지나 촌장이 직인을 찍어 발급하였으며, 세키쇼테가타는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번(藩)의 다이묘가 발행하는 것으로 관문을 통과할 때 제시하던 통행중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서민들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허가증을 발급받는데 가장 손쉽고 정당한 이유는 다름아닌 사사참배, 그중에서도 나라의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이세신궁의 참배는 매우 유효한 명분이었다. 이렇게 볼 때 자유로운 이동이 극도로 제한 받던 상황 속에서 이세마이리를 비롯한 사사참배는 그야말로 ‘공식적인 명분(タテマエ; 타테마에)’은 종교적 참배이지만 ‘실제적인 목적(ホンネ; 혼네)’은 여행으로

서 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듯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에도시대 네덜란드 상관 소속 의사였던 캠펔은 그의 여행기에서 산킨코타이 행렬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이세마이리의 행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

이세마이리 여행에 나선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건 간에 마찬가지로 이 커다란 가도의 일정구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참배여행은 1년내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봄에 많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이 때쯤 되면 가도는 오로지 참배여행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된다. 노인이나 젊은이, 신분이 귀한 자나 천한 자, 남자와 여자 구별없이 이 여행을 통해 신앙과 어떤 이익을 얻고자 가능하면 여행에 나서고자 한다 (ケンペル 1977: 53).

캠펔은 이어서 당시 이세로 참배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가 일반의 [가난한] 서민들이었음을 추측케 하는 관찰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음식물이나 노자를 여행을 하면서 구걸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많은 수의 이세마이리 여행객들은 [따라서] 산킨코타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유쾌한 상대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달아 산킨코타이 행렬에 속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삿갓을 벗고 주춤거리는 목소리로 “나오리, 이세마이리 가는 늑에게 노자 한푼 보태주십시오”하며 말을 걸기 때문이다 (원글: 53-54).

또한 이세마이리는 당시 억압적인 봉건체제하에서 서민들이 이동을 통해 잠시나마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흔치않은 합법적인 수단이었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허가없이, 혹은 죄를 범하고 이세로 ‘도망’을 가버리는 식의 일종의 ‘비정상적인’ 방식의 이세신궁참배, 즉 위에 언급한 ‘누케마이리’를 결과하고 있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캠펔의 관찰을 인용하면,

다른 지방의 사람들보다도 에도나 오슈(奥州: 지금의 동북지방)의 주민들 중에는 허가도 받지 않고 이세마이리에 나서는 풍습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을 저질러 곧 벌을 받게될 소년조차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종종 양친에게서 도주하여 이세를 향해 떠나서 자신들의 사면에 효과가 있음에 틀림없을 면죄부를 받아온다. 이들 모두가 숙박시설에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경우에 따라선 길가에서 병과 피로에 죽어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원글: 54).

이처럼 에도시대 들어 사회가 안정되어 갈수록 사회의 점점 더 넓은 층의 사람들이 이세마이리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다른 관찰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어 온 것으로, 여기에는 [원칙상 이동이 강하게 규제되었던]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종교적 참배, 특히 이세신궁참배는 좋은 일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있어 비록 정상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떠난 경우에도 별척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사실과 종교적 믿음과 결부된 보시(布施)관행이 있었다. 즉 참배자/순례자들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은 곧 은덕을 쌓는 일이라고 여겨졌으며, 순례자들은 신들이 위장하고 나타난 것이거나 부처의 환생일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특히 이세마이리를 가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숙소, 교통 편의, 돈 등을 여행도중에 보시받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돈을 남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Vaporis 1994: 253).

위에서 언급한 ‘오카게마이리’란 말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오카게마이리, 즉 허락을 받지 않고 이세로 떠나는 누케마이리는 몇십 년을 주기로 해서 그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1650년, 1705년, 1771년, 1830년 1867년에는 전성기를 맞아 많은 때에는 반년간에 약 458만명의 참배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足羽 1994: 28). 결론적으로 에도시대에는 그 이전까지와 같이 여행이 귀족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상당정도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경제성장, 상업화의 진전, 코 집단의 발달, 보시 제도 등의 관행이 결부되어 이세마이리를 비롯한 참배여행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었다.

IV. 관광으로서의 이세마이리

1. 관광여행으로서의 참배여행

앞서 살펴본대로 에도시대에 서민의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의 하나는 사사참배와 온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참배와 온천치유 등은 어디까지나 공식적 목적이었고 실제 목적은 “놀이”, “유람”이었음을 시사하는 근거들이 많이 존재한다. 1830년 (文政13년)에 출판된 일종의 백과사전인 『嬉遊笑覽』은 참배를 위한 여행이 얼마나 명목에 지나지 않았던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요즘 [에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교토, 오사카, 나라 등지를 여행하기를 즐겨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신사의 하나인] 카시마신사 참배(鹿島詣)는 기괴한다. 여러 불사나 신사를 찾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것이고 실제로는 유락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세신궁의 경우도 그것이 [교토, 오사카, 나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참배하는 것이다 (喜多村 1929: 176, 石森1989: 98에서 재인용)

근세일본사회에서의 여행의 발달과정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해 온 역사학자인 콘스탄틴 배포리스(Constantine N. Vaporis) 역시 종교적 참배 여행이 에도시대에 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관광과 유람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띄어갔음을 지적하고 있다(Vaporis 1994). 그런 증거는 각종 참배와 순례여행에 있어 여행일정이 증가하고, 원래의 목적지 이외의 유명신사나 사찰, 그리고 인근의 유명한 명소나 유적에 들르는 횟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 등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이세마이리의 경우 이세신궁이 점차 여행의 목적지라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여행일정에 있어서 하나의 경유지처럼 되어갔으며 참배후 돌아오는 경로는 대개가 갈 때와는 다른 길이 선택되었다고 한다. 이세마이리를 위한 여행일정도 50일에서 70일간은 보통이고, 두달반에서 석달간의 여행도 드물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선 넉달에서 여섯달에 걸친 여행도 있었다고 한다 (ibid.: 218).

동북지방의 사람들이 이세마이리를 할 경우, 참배를 한 후 곧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세테라(長谷寺), 아스카(飛鳥), 요시노(吉野), 코야산(高野山)을 거쳐 오사카에 들르

고, 시고쿠(四國)의 콘피라(金毘羅)에 가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와 교토, 나카센토(中山道)를 거쳐 쯔코지(善光寺)에 가는 식의 현대일본의 패키지투어도 무색해질 관광여행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는 연극을 필두로하여 각종 구경거리와 호화로운 식사, 유곽에서의 여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石森 1989: 106). 예컨대 어떤 코 집단이 이세신궁 참배여행을 하고 남긴 여행기는 일종의 “이세마이리의 미식(美食) 안내서”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들이 식사를 한 식당들, 두달간의 여행 동안 맛본 백가지가 넘는 음식들, 머물렀던 여관들, 구경하거나 구입한 각 지방의 명산품들, 이들이 방문한 명소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Vaporis 1994: 238). 그리하여 아이즈와카마츠(會津若松: 동북지방 아이즈번의 城市)의 한 관리는 1745년, “우리가 아무리 금지령을 내리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매년 봄이면 이세마이리를 한다는 구실로 번을 떠난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여행을 유람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ibid: 239에서 재인용).

2. 동북지방으로부터의 몇 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에도중기 무렵부터 서민의 여행붐이 일었고, 이 여행의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적 참배, 특히 이세신궁참배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되 실제로는 유람과 관광의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당시의 이세마이리 여행을 기록한 구체적인 여행일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실제 당시 일반인들이 이세마이리를 할 때 어떤 식의 여행을 했든가, 즉 어떤 길을 통해서 갔고, 여행일정은 얼마나 길었으며, 여행루트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나를 살펴봄으로써 관광으로서의 이세마이리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하의 자료는 일본 동북지방 아이즈(會津) 지역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사쿠라이(櫻井 1985)의 논문에서 인용된 것들이다. 사쿠라이는 에도시대에 아이즈와 그 인근에서 이세마이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남긴 오늘날의 여행일지라 할 수 있는 ‘도추닛키(道中日記)’에 나타난 열여덟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열여덟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가 다섯명에서 스무명이 한 단위가 되어 집단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장기화된 여행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호간의 마찰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내규(內規)’를 정해놓은 경우도 나타난다. 여행출발일자가 확실한 열세팀의 경우를 출발시기별로 살펴보면, 1월이 5팀, 2월이 2팀, 4월이 2팀, 10월이 1팀, 11월이 1팀, 12월이 2팀이다. 즉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 이세마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동북지방으로부터 이세로 향하는 여행루트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가 된다. 첫 번째는 대평양 연안의 카지마(鹿島)신궁, 카토리(香取)신궁, 나라타산(成田山) 등을 참배한 뒤에 에도를 경유해 이세로 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표-1>과 같은 루트가 여기에 속하며, 사쿠라이의 자료 중에는 세 경우가 이 루트를 여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오슈도추(奥州道中)를 중심으로 한 내륙부의 가도를 따라 에도를 거쳐 이세로 향하는 루트로, <표-2>가 그 예이다. 인용된 자료 중 열팀이 이 루트를 따라 여행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일본해 측을 경유해 이세로 향하는 것으로

에컨데 <표-3>과 같은 경우이다. 사쿠라이 자료 중에 세팀이 이 길을 따랐다.

<표-1> 文化13년(1816) 12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6일까지 65일간 여행

날짜	여정	날짜	여정	날짜	여정
12.1	(福島相馬) 新沼村 原町(12.2 富岡木錢) 平(12.3 湯本木錢) (12.6 子生村木錢)	12.20	久能山 ※산 입장료로 일인당 백문(百文)씩 지불 (12.20 이하 掛川, 坂下, 順山, 大木村, 大濱에서 숙박은 木錢)	1.10	高野山 ※안내비로 일인당 2부(付)6문(文)씩 지불 (1.11 横山村木錢)
12.7	鹿島神宮 (12.7 鹿島木錢) 大船津 미즈키시(松きし) 銚子	12.24	鳳來寺	1.12	境(堺) ※안내비 16명분 백문 (百文)
12.9	銚子逗留, 구경	12.26	熱田神宮 名古屋 津島 佐屋 (12.27 桑名木錢)	-1.13	大坂 ※안내비 백문(百文)
12.10	香取神宮 (12.10 佐原木錢)	12.29	伊勢	1.13	大坂(夕)
12.11	成田山 (12.11 櫻木錢) 行徳 五百나한	- 1.2	(1.3 히사이(ひさい)木錢) (1.4 上野木錢)	1.14	伏見(朝)
12.12	江戸	1.5-	奈良	1.14	伏見稻下
-12.15		1.6	※안내비로 16명분 백문(百文)지불 (1.6 奈良木錢) (1.7 高田木錢)	1.15	京都
12.16	鎌倉 에노시마 (江の島) (12.16 藤澤木錢) (12.17 湯本木錢) (12.18 沼津木錢)	1.5-		-1.16	[中山道] 松本
		1.8	長谷寺 多武峰	1.26	善光寺 輕井澤
		1.9	吉野	1.28	妙義山, 倉賀野 玉村
				2.1	日光 ※안내비 백문(百文) 白川 二本松
				2.6	新沼村

자료: 相馬郷土研究會資料叢書第八輯 『伊勢參宮道中記』(櫻井 1985: 159에서 재인용)

<표-2> 安政3년(1856) 2월 1일에서 4월 17일까지 75일간 여행

날짜	여정	날짜	여정	날짜	여정
2.1	(會津田島) 關本村 五十里 大桑 宇都宮 結城 關宿(夜)	2.28- 2.29	佐屋 桑名 伊勢泊 長島 (배는 타지 못함)	3.21	明石 順磨寺 西宮大神宮 大坂
2.7	니노이(にのい)(朝) 江戸(晝)	3.4	[熊野新宮] [熊野那智社] [熊野本宮]	3.22	[葛井寺] 岡寺 [談山神社]
2.7- 2.10	江戸泊	3.6	高野山泊 大津	3.23	長谷寺 奈良
2.13	鎌倉 에노시마(江の島) ※안내비 15인분 백문 (百文) 遊行寺	3.8	粉河寺 岩出 紀三井寺	3.24	[三室戸寺] 伏見稻荷
2.15	三島大社 清見寺	3.10	和歌山 무야(むや) 徳島	3.26- 3.29	京都泊 森山 鳥居本
2.19	久能山 ※안내비 10인까지 이백문 府中 淺間神社 (秋葉山, 地震)	3.11	金毘羅神社	4.3	岩屋觀音
2.19	舞坂 新井 宮	3.13	仏生山法年寺	4.6	寢覺床 洗馬 松木
2.25	熱田神宮 名古屋	3.14	金毘羅宮	4.8	善光寺泊 小諸 高崎 茂呂 今市 日光 五十里
		3.15	丸龜(夜) 田口(朝)	4.17	關本村
		3.16	瑜伽大權現		
		3.17	室津(晝) 石の寶殿 住吉大明神 大峯山大權現		

자료: 『田島町史』 民俗編 (櫻井 1985: 166에서 재인용)

<표-3> 文久2년(1862) 8월 21일에서 12월 24일까지 123일간 여행

날짜	여정	날짜	여정	날짜	여정
8.21	(本壓) [日本海側] 京都 姫路 金毘羅宮		大坂 高野山 奈良 山田 名古屋		[東海島] 江戸 [奥州街道]
				12.24	(本莊)

자료: 『本莊市史資料古文書所在目録』 第1 (櫻井 1985: 167에서 재인용)

<표-1>, <표-2>, <표-3>에 제시된 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도 중간에 에도에 들르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이로 미루어 동북지방으로부터 이세마이리를 떠나는 것은 에도구경을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닛코(日光) 등의 명소나 교토, 오사카, 나라, 카마쿠라 등의 도시도 빈번히 포함되어 있다. 실제 숙박일수를 검토해 봐도 정작 공식적인 목적지인 이세에서의 숙박일수는 대개가 하루나 이틀 등 극히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에도나 교토 등지에서 더 긴시간을 보내고 있다.⁵⁾

특히 에도의 경우 대개가 2박(二泊)에서 4박(四泊)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긴 경우는 12박(十二泊)을 하며 머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은 당시 이세마이리가 실제 어떤 의미를 지닌 여행이었던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당시 에도를 관광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에도관광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 도시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세마이리를 비롯한 각종의 사사참배의 도중에 에도를 며칠 들러 관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山本 1987: 354). 에도관광의 경우 구경하는 코스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이 점에 관해선 황달기 1997을 참조; Vaporis 1994: 18), 이는 당시 관광안내업자의 영향과 에도 시내에 관한 안내서의 보급 결과라고 지적되고 있다 (櫻井 1985: 172).

전체 여행기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열여덟 사례 중 열네 사례인데, 그 중 다섯 팀이 63일에서 75일에 거쳐 여행을 했으며, 또다른 다섯 팀이 85일에서 95일간의 여행을, 그리고 나머지 팀의 경우 각각 106일, 120일, 123일, 210일간의 장기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행이 장기화된 것은 동북지방으로부터 이세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당시 여행이 도보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세마이리가 단지 이세에 다녀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⁵⁾여기서 인용된 여행기와 다른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는 베포리스(Vaporis 1991; 1994)의 분석을 보면 이세마이리 여행단체 중 정작 이세신궁 참배는 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팔고 있는 ‘참배중거물’, 예컨대 기념품이나 부적 등만 구입하고 떠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부적인 참배자들이 모자 앞장에 매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여행허가가 없이 떠난자들에게 일종의 여행허가증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베포리스는 이세신궁 참배여행에 있어 이세신궁이 실제적으론 목적지이기보다는 일종의 경유지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실제로 아이즈 인근에 위치한 미하루번(三春藩)의 경우 1667년 각지의 순례와 참배여행에 대해 여행일수의 상한선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세마이리의 경우 33일이 상한선으로 정해졌었다고 한다(櫻井 1985: 177). 이것이 아이즈 인근으로부터 이세신궁참배만을 하고 곧장 귀향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은 기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이세마이리가 단지 이세뿐만 아니라 킨끼(近畿) 지방의 많은 신사와 불사를 방문하고 유명관광 명소나 도시들의 관광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여행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사쿠라이는 이세마이리의 루트를 크게 ①이세왕복형 ②킨키주유형(近畿周遊型) ③덜릭스형으로 나누는데(윗글: 176), 이세왕복형은 이세까지를 왕복하는 것, 킨키주유형은 킨키 지역에 많이 분포한 신사와 불사를 돌아보는 일정이 포함된 것, 덜릭스 형은 킨키권을 벗어나 시고꾸(四國)에 위치한 콘피라와 경우에 따라선 큐슈까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실제 그가 인용한 아이즈 인근의 열여덟 사례의 여행기에는 이세왕복형에 속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세마이리는 당시 일반 서민들에게 관광과 유람, 그것도 장기에 걸친 여행으로서 정말이지 ‘평생에 한 번’의 소원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흔히 말해지는 “일생에 한 번은 이세마이리를…”이라는 소원 속에는 단지 종교적인 열망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급진상의 이유로 혹은 시간적인 이유로)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꿈꾸기 힘들 정도의 귀한 여행체험에 대한 세속적인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세신궁참배와 몬젠마치(門前町)

외부의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발달은 유명사찰이나 신사 주변에 ‘몬젠마치(門前町)’라고 하는 거리를 형성시켰는데, 이는 여관 등의 숙박시설, 연극상연을 위한 극장, 선물가게, 찻집, 유곽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찰이나 신사의 방문이 종교적 목적보다 유락을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또다른 예이다(Ishimori 1989: 185).

이세의 외궁(外宮)에서 내궁(內宮)에 이르는 중간에 있는 후루이치(古市) 참배가도(參宮街道)는 이세마이리와 더불어 번성한 곳이다. 이세신궁참배의 순서는 대개 외궁을 참배하고 나서 내궁을 참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외궁은 벼농사를 비롯하여 제산업을 수호하는 ‘토요우케노오미카미(豊受大御神)’를 모시고 있는데 외궁에서 내궁까지의 거리는 약 5킬로미터 정도이다. 외궁을 참배한 사람들은 대개가 이 외궁과 내궁사이의 참배로를 걸어 최종목적지인 내궁에서 아마테라스오미카미에게 참배를 하게 된다. 후루이치는 이 중 내궁 앞에, 주로 참배객들을 상대로 발달했던 곳이다.

이 후루이치 지역은 참배객들의 왕래로 항상 활력이 넘쳤으며 참배을 마친 사람들의 ‘수행해제(精進落とし)’의 장소로서 에도의 요시와라(吉原), 교토의 시마바라(島原)에 필적하는 3대 유곽지였었다고 한다. 아무리 본래 목적이 관광과 유람이었다고는 하나 명목상은 이세신궁참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참배객들은 참배를 마칠 때까지는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였다고 한다. 참배를 마친 후 갖는 ‘수행해제’의 잔치는 대개 유곽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말 그대로 이제 수행기간이 끝났음을 축하하

는 것이었다.

이세의 후루이치에는 전성기에는 기생집(妓樓)이 70여 곳, 유녀(遊女)가 1,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몇몇 유곽들은 나중에 가부끼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에도시대 기행문학의 대표작인 “토카이도추히자꾸리계”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伊勢市立伊勢古市參宮街道資料館). 당시 이곳을 들렀던 한 이세신궁 참배객은 후루이치는 “일본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곽들이 있는 곳”이라고 평하며, 일종의 가부공연인 “이세온도(伊勢音頭) 공연은 누구나 반드시 보아야 할 필수코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Vaporis 1994: 240에서 재인용). 후루이치는 말하자면 당시 이세에서 가장 변화가이자 환락가였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수의 유곽이나 연극공연을 위한 극장 등의 존재는 당시 일본인들의 사사참배에 있어서의 유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해 본대로 에도시대는 일본의 순례·참배사에 있어 획기적인 시대였으며, 더불어 현대 일본인의 여행의 기본적 패턴도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 일본 근세기에 있어 서민여행의 가장 큰 계기는 사사참배였다. 특히 에도중기 이후의 경제발전과 각종 코의 발달 덕분에 상당수의 서민이 신사와 사찰에 참배를 하기 위해 여행에 나서는 것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각종의 여행서비스업도 에도중기 이후 전국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에도시대 일본인의 전부가 경건한 종교자로서 기도와 참배를 위한 목적만으로 여행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 참배는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이유였고 실제의 목적은 관광과 유락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찰해 보았다.

물론 에도시대 여행의 종교성이 무시되어선 안되지만, 명분이 종교적 참배였다는 것이 곧 그 여행의 실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식적인 여행목적이 사사참배에 있었던 만큼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나름대로 금욕적인 여행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참배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온천치유나 도시 관광을 하거나 연회를 갖고, 남성들은 유곽에 들르는 것이 정례화된 코스였다고 한다(神崎 1991: 133).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기행문과 도추기(道中記) 등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예컨대 삽화가 곁들여진 『토카이도추히자꾸리계』에는 사사참배에 나선 사람들이 ‘관광’과 ‘유희’를 즐기는 모습이 글뿐만이 아니라 삽화를 통해서도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빅터 터너(Victor Turner) 등이 기독교 세계의 순례에 있어서도 명소관광, 쇼팽, 음주 등의 놀이와 유락의 요소가 농후했음을 지적한 것과는 상충하는 것이며(Turner and Turner 1978), 그레이번이 일본여행의 문화적 구조를 “기도하고, 돈을 쓰고, 노는 것”으로 파악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Graburn 1983). 특히나 봉건체제하의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었을 신분상의 제약과 일상생활의 부자유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사참배는 이국의 땅에서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상상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목적 이상으로 ‘세속적인’ 동기가 이들을 강하게 사사참배로 끌어들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종교와 관광의 관계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종교기관에 의한 관광시설업의 발달이

다. 살펴본대로 당시 온시(御師)라고 부르는 종교관계자가 있어 이들이 일종의 관광기획자 및 가이드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패키지여행의 제도화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 촌락으로부터 특정의 사찰과 신사까지의 루트 설정, 길 안내, 숙소예약, 관광안내, 참배 안내, 연극이나 찻집으로의 안내 등의 관광 전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였다. 즉 현대 일본인들의 관광행태를 특징지우는 단체여행, 패키지 여행은 이미 에도시대 일본의 여행발달 초기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비교문화적으로도 여가의 증대와 더불어 관광 혹은 여행의 대중화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비해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이미 여흥과 유락을 위한 여행, 즉 관광이 대중화된 형태로 상당히 발전해 있었음을 주목할 만하다. 에도시대에는 도로가 발달했던 것에 비해 마부가 기동성있는 교통수단을 제한했던 관계로 교통기관은 별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행자는 도보로 여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교통기관의 미발달이 여행의 대중화에 기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도보여행에 의해 빈부의 차이없이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당시 유럽에는 마차가 발달해 있어서 여행을 할 경우 대개 마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마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층계층만 이용가능한 것이었으며, 숙박시설 역시 마차로 하루 일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던 관계로 경제적으로 마차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들이 여행에 나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도보로 하루 일정을 기준으로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石森 1989: 100). 이런 의미에선 일본에선 유럽의 경우처럼 산업혁명 이후의 철도 발달을 기다려야 하는 일 없이 그 이전 단계에서 여행의 대중화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양주, 1997, 「일본관광 명소와 자원의 변천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만들어지는 명소」, 교육부 해외지역연구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문옥표, 1997, 「일본관광의 사회조직 - 단체여행의 역사와 문화」, 교육부 해외지역연구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황달기, 1997, 「관광대상으로서의 도시와 도시사람들의 관광욕구 - 근세 일본의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교육부 해외지역연구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足羽洋保(Ashiba Hiroyasu) 編, 1994, 『新・観光學概論』, ミネルヴァ書房.
- 五來重(Gorai Shigeru), 1989, 『遊行と巡禮』, 角川書店.
- 星野英紀, 1986, 「歩きと巡りの宗教性: 西國巡禮と四國通路」, 山折哲雄 編 『遊行と漂泊』, 春秋社.
- 伊勢市立伊勢古市參宮街道資料館, 「古市參宮街道」(관광안내팸플릿)
- 石森秀三, 1989, 「旅から旅行へ」, 守屋毅 編, 『日本人と遊び』(現代日本文化における傳統と變容6). ドメス出版.
- , 1991, 「觀光と宗教: 比較文明學の視點から」, 국제심포지움 『近世世界における日本文明:

- 觀光の比較文明學』(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 1991. 3. 18 - 3. 25)에서 발표된 논문초고.
- 神崎宣武, 1990, 『觀光民俗學への旅』, 河出書房新社.
- , 1991, 『物見遊山と日本人』, 講談社現代新書.
- ケンペル(Kaempfer), E., 1977(1779), 『江戸參府旅行日記』(東洋文庫 303), 齊藤信譯, 平凡社.
- 喜多村信節, 1929, 『嬉遊笑覽』 下卷, 日本隨筆大成刊行會.
- 北留間尙, 1986, 『江戸の開帳』, 吉川弘文館.
- 中川浩一, 1985, 『觀光の文化史』, 筑摩書房.
- 中村幸彦(校注), 1975, 『東海道中膝栗毛』, 小學館.
- 大山敷太郎, 1967, 『近世交通經濟史論』, 柏書房.
- 櫻井邦夫(Sakurai, Kunio), 1985, 「近世における東北地方からの旅」, 『駒澤史學』 34號: 144-181.
- 島内景二(Shimauchi Keiji), 1989, 『日本人の旅』, 日本放送出版協會.
- 白幡洋三郎(Shirahata, Yoozaburoo), 1996, 『旅行のススメ』, 中公新書.
- 所 功(Tokoro Isao), 1993, 『伊勢神宮』, 講談社學術文庫 1068.
- 豊田武・兒玉幸多 編, 1970, 『交通史』, 山川出版社.
- 山本光正, 1987, 「諸國人にとっての江戸」, 『近世都市江戸町方の研究』, 國立歷史民俗博物館.
- 山下晋司(Yamashita Shinji), 1996, 『觀光人類學』, 新曜社.
- Graburn, Nelson,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1), pp. 9-33.
- , 1983, *To Pray, Pay and Play: the Cultural Structure of Japanese Domestic Tourism*, Aix-en-Provence: Centre des Hautes Etudes Tourisques.
- Ishimori, Shuzo, 1989, "Popular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ourism in Early Modern Japan," in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IV: Comparative Studies of Economic Institutions*. eds. by Umesao Tadao, Mark Fruin, and Nobuyuki Hata. Senri Ethnological Studies, no. 25.
- Moeran, Brian, 1983, "The Language of Japanes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1).
- Nash, Dennison, 1981, "Tourism as an Anthropological Subject," *Current Anthropology*, 22, pp. 461-480.
- Tokuhisa, Tamao, 1980, "Tourism within, from and to Japa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32, pp. 128-150.
- Turner, V. and E. Turner, 1978,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Columbia University Press.
- Vaporis, Constantine, N., 1991, "The Early Modern Origins of Japanese Tourism", a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in Tourism", 1991. 3. 18 - 3. 25. National Ethnological Museum, Osaka, Japan.
- , 1994, *Breaking Barriers: Travel and State in Early Modern Japan*,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

Religion and Development of Tourism in Early Modern Japan: Focusing on Pilgrimage to Ise

Kweon, Sug-I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rary to the common idea that leisure was a phenomenon born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ravel emerged as a form of recreation in the Tokugawa period and large number of commoners engaged in travel for enjoyment for the first time in Japanese history. In particular, tourism developed in this period in close relationship with pilgrimage to major temples and shrines.

Under the Tokugawa feudal system, movement of the commoners was strictly restricted except for travel to temples and shrines and to hot springs for medical treatment. In this situation, pilgrimage provided rare opportunities for the common people to make long-distance travel leaving their residence. Mainly due to the requirements of alternate attendance (*sankin koto*), major roads and other facilities for travel were well established in this period and this made travel much easier and safer than ever, too. Overcoming financial restraints by joining in a religious confraternity in which economic resources were pooled to send a number of members on pilgrimage on a periodic basis, commoners participated enthusiastically in pilgrimage. Especially, pilgrimage to Ise Shrine was a lifetime desire for most Japanese and also was the surest ground to get a travel permission..

Pilgrimage to Ise often took recreational nature. Even though the official purpose of it was visiting to and praying at the Japan's most sacred place, it often worked as a pretext to obtain official permission to travel for recreational purpose. Existing travel diaries show that trips to hot springs, major cities such as Edo, Kyoto, and Osaka, and other major tourist spots were often included in the pilgrimage route to Ise. Also, records about the towns formed around the shrine indicate that many people visited this place more for enjoyment than for religious purpose. For these reasons, people on pilgrimage during the Tokugawa period can be said as partial tourists and pioneers in the full development of tourism in Japan.